

박람회장 매각 대신 임대로 전환해야

2차 매각도 실패...여수사후활용추진위, 내일 정부 재투자 등 촉구 '인간띠 잇기'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문제가 여수 등 남해안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 예산 2조 이상이 투입해 2012 세계여수박람회를 개최한 후 폐막 1년이 넘도록 박람회장이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선투자금 4846억원 회수를 위해 매각에 나섰다. 지난달 2차 매각조차 실패하면서 재투자를 통한 장기 임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박람회장 정문 앞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012명 인간띠 잇기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정부가 박람회 사후활용에 대해 단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사후활용 추진을 요구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등 정부가 청산을 위주로 민간에게 책임을 미루는 사후활용 대책

은 잘못됐다는 것이 추진위와 여수시 등 지역 여론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시민결의문 낭독과 함께 박람회장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한 시민행동강령도 선포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그동안 정부에 박람회장 매각을 통한 투자자금의 회수보다는 재투자를 통한 사후활용 활성화 추진을 건의해왔다.

이날 시민결의문에서 추진위는 "2차에 걸친 매각추진 실패는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민간투자를 통해 사후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여수시는 물론 진주시 등 남해안권 주민들은 박람회장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한 여수박람회장 매각이 잇따라 실패하자 매각이 아닌 장기 임대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해양수산부, 전남도, 여수박람회재단 등에 낸 바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월빙 과일' 고흥 석류 풍년
고흥군 석류 재배 농민들이 7일 오후 수확한 석류를 바구니에 담고 있다. 고흥에서는 올해 340농가가 130ha의 면적에서 400여톤의 석류를 생산할 예정으로, 전국 생산량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가을 별미 신안 왕새우 맛보러 오세요

11일부터 2일간 축제 섬 등반대회도 개최

신안군이 본격적인 가을철 출몰 시기를 맞아 11일부터 1박2일간 '제2회 신안 왕새우(대하·사진)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아름다운 바다와 섬 경치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섬등반대회와 동시 개최되며, 왕새우 잡기 대회와 주민들이 참여

하는 왕새우 요리 시식회, 민민 노래자랑, 야간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신안은 왕새우 전국 생산량의 35%를 차지하는 주산지지만 일반인들에게 이 같은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군은 이 같은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전국 생산량의 70%를 생산하는 천일염의 본고장인 만큼 왕새우와 최고급 천일염이 우리

내는 '맛'을 선사하기 위해 이번 축제를 마련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또 신안의 명품 소금과 각종 농수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장터를 운영,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하게 왕새우를 판매하기로 했다.

올해 신안군에서 왕새우는 축제식 양식장 67개소 302ha에서 1000여톤을 생산, 170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004의 섬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왕 새우는 게르마늄과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된 갯벌에서 자라나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좋으며, 특히 신안 천일염에 구어 먹으면 맛이 더 좋다"고 홍보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한밤 악천후속 낚시꾼 16명 살린 여수해경 317함

국제해사기구 선정 '바다의 의인상' 수상

여수해양경찰 소속 317함(사진)이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바다의 의인상'과 함께 감사서한까지 받았다.



여수해양경찰은 8일 "지난 7월에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13 바다의 의인상' 수상자로 317함을 결정했으며, 지난 7일 해양경찰청에서 거행된 전수식에서 감사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IMO 사무총장은 감사서한을 통해 "악천 후 속 구조한 점을 인정하며, 담당하고 자랑스러운 훌륭한 헌신으로 표창장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317함은 지난해 11월24일 새벽 3시15분경 여수시 소리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악천후와 어둠 속에서 기관실이 침수된 낚시어선 D호(9.77t)에

승선해 있던 16명을 극적으로 구조했다. 당시 317함은 북풍풍 속속 14~18m, 파도는 2.5~3m의 악천후 속에서도 전속력으로 사고해역에 도착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바다에서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 및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바다의 의인상'을 수여하고 있다.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11~13일 서천공원 일원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빛과 꽃, 그리고 맛의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광양을 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광양의 전통음식인 한우숯불구이는 물론 닭불고기, 장어구이 등 광양을 대표하는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1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1일 시립국악단 공연, 모창경연대회 등 지역 문화예술의 장과 제7회 코스모스가요제 예선, 12일 코스모스 건강 걷기대회,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은어잡기 체험, 코스모스가요제 본선 등이 계속된다.

13일에는 청소년 장기자랑, 시립합창단 공연, 은어잡기 체험, 월드빅쇼 공연이 펼쳐진다.

무단방치·불법개조 차량 신고 하세요

목포시, 경찰·교통안전공단과 한달간 일제단속

목포시는 8일 "이달 한 달 동안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까지 무단방치 차량이 크게 늘면서 도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이르렀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 설치 차량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 등 범규위반 자동차가 해당된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불법구조변경 차량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단방치된 자동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신고정신을 당부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전남관광(주)-한국능률협회

객실 판매 전략적 업무협약

전남개발공사의 자회사인 전남관광(주)이 국내 최대 교육 컨설팅 업체인 한국능률협회와 숙박시설 고객 유치와 상호 지원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관광(주) 송영진 사장은 8일 여수시 경호동 여수 경도리조트 클럽하우스에서 한국능률협회 최권석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객실 판매 전략적 업무 제휴식을 가졌다. <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관광(주)는 숙박시설 영업활성화와 한국능률협회의 900여개에 달하는 회원사의 회원 등 고객을 확보하게 됐으며 한국능률협회 측에서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증대 및 숙박시설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업무로서 이용하시는 모든 분께 힐링과 최고의 만족을 전해보드리도록 임직원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관광(주)는 여수 경도리조트, 남악골프연습장, 울돌목 거북선, 한옥호텔 오동재·영산재, 해남팡글호텔 등의 관광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송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의 대표적인 관광

/장필수기자 bungy@kwangjuu.co.kr

'만' 가지 알찬정보와 '물' 만난 살림꾼들의 '상' 상초월 비법!

살림9단의 만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